

제주사회복지신문

>2018년 3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125호



▲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 준공식이 지난달 26일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테이프커팅 모습.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 준공

기부 나눔문화 활성화 플랫폼 기대

지난달 26일 도사회복지협의회관 내 현지에

매년 증가하는 기부식품의 안정적인 관리와 배분을 위한 물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26일 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내 현지에서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김항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도내 유관기관 및 사회복지단체장, 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은 물류센터 건립에 애쓴 유공자에 대한 시상, 간판제막식, 테이프커팅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광역푸드뱅크에서는 도내 식품 접수액이 지난 한 해 22억9502만원을 돌파하는 등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평균 28%씩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을 보관할 물류창고가 없어 증가하는 물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따라 도사회복지협의회는 도와 도의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 지상 2층에 연면적 278.28㎡ 규모로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1층에는 식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 냉동·냉장 저장고, 물품분류 및 포장작업실이, 2층에는 사무실, 회의실이 조성됐다.

고치환 회장은 "식품나눔을 트렌드로 확장시키기 위해 절실한 것은 물류센터"라며 "제주도 복지예산 1조원 시대에 맞춰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는 "물류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관계

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린다. 먹을거리를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사회에 널리 알려질 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충홍 도의회의장은 "식품기부의 창구역할을 할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 준공을 축하드린다"며 "효율적 관리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제주광역푸드뱅크 기부식품 물류센터가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혀주는 햇살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섭 제주광역푸드뱅크 운영위원장은 "물류센터 개소에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나눔이 시작되는 곳으로 커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7면으로 계속

중장년·노년층 일자리 250개 창출

JDC, '이음 일자리 사업' 개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는 3월부터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YWCA고령자인재은행,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와 함께 중장년·노년층의 사회경험과 재능을 일

자리로 잇는 '이음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음'은 사람과 사람을 잇고, 일자리로 지역사회를 '잇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번 사업은 오름 환경관리와 등반객 안내를 담당하는 '오름 매니저'를 비롯해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문화공연을 하는 '버스킹 공연단', 지정된 장소에서 도서를 대여하는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기부식품을 관리하고 배

참여 대상은 현재 재직

자와 사업주를 제외한 만 50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제주도민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주 12시간, 월 4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이음 일자리 사업은 신(新)중년의 재능을 활용한 제주 지역 환경에 맞는 근로 활동을 통해 의미있는 인생 이모작을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 사업으로서 지역 특화형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3월 중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진행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702-3783),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710-4504), 제주YWCA 고령자인재은행(711-83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면소개

■ 종합 3면 이웃 지킴이 '좋은 이웃들' 사업 운영	■ 특집 7면 이웃 위한 '식품 나눔' 활발
■ 사회복지소식 4면 생필품 나눔으로 채워 가는 사랑의 온기	■ 기획 8면 시설탐방(94) - 원당요양원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도내 사회복지 **인권향상**을 위해 **법률 홈닥터**가 달려가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자·사회복지종사자·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1. 인권상담 2. 소송 절차 안내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4. 법문화 출장 교육 등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상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법률홈닥터에서 신청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미얀마 카렌주 장애인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준강 후원, 지구촌나눔운동...의족제작 센터 개소

미얀마 영토에 묻혀 있는 지뢰의 70%가 집중돼 있는 카렌주에서 2년 동안 진행한 장애인 지원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사진>

국제개발협력 NGO 지구촌나눔운동(이사장 박명광)은 지난달 12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관계자 및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얀마-태국 국경지역 카렌주 장애인지원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보고회는 사회복지법인 준강 이동한 이사장 후원으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구촌나눔운동이 2016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얀마-태국 국경지역의 지뢰피해자와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장애인지원사업

의 결과와 개선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카렌주에는 60여 년간 계속된 미얀마 정부군과의 내전 이후 많은 양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 카렌주 파안 지역의 루뽀레 타운십은 마을 당 1명 이상의 지체 장애인이 있으며 지뢰 폭발로 인한 요인이 80% 이상이다. 그러나 소수의 장애인만 의지 보조기를 지원받는 상황이었다.

이에따라 지구촌나눔운동은 현지에서 의수족

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제작기술자를 양성하고 제작센터를 개소했다. 현재까지 약 310명에게 의수족을 지원했다.

또 ▲빈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빈곤장애아정 장학금 지원 ▲장애인식개선 및 지뢰안전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와함께 이 날 보고회에서는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과 강인철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의 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지난달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저소득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발급되며, 대상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



거나 온라인 문화누리카드의 누리집(www.mnuri.kr)에서 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관·영화·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축구·농구·야구·배구 관람 등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서 연간 7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지역별·장르별 가맹점 등 문의사항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총 1만 5112명의 소외계층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으며, 올해에는 총 1만6148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주거형태,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의 경우 주거비를, 본인 소유의 집일 경우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2월 현재 제주시 지역

지원 대상 가구는 8300여 가구이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2018년 기준 4인 가구 194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가구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구 기준으로 최대 20만8000원과 본인 소유의 집에 살

고 있는 가구는 최대 950만원 상당의 집수리 비용이 지원된다.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지원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복지 1등 제주 실현’ 토론회

복지 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은 제주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7일 ‘도민이 행복한 복지1등 제주 실현’을 주제로 의료, 학계, 연구원, 사회보장협의체 등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복지 예산 1조원 시대에 걸맞는 제주형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종합적 사회보장 계획 수립 ▲성과관리 및 복지기준 설정 ▲네트워크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보육 공공성 확대 ▲제주형 노인일자리 개발 ▲양성평등·여성친화도시 실행력 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복지정책분야에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제

성·실효성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형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 연놀이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노인장애인분야에서는 제주 관광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노인일자리 모델 개발과 지방 공기업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다양화와 고용창출, 사회 통합적 관점의 프로그램 발굴 등의 기능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고, 노인과 장애인 분야 조직 분리 방안도 언급됐다.

여성가족분야에서는 생활 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제주처럼’의 내실 있는 추진과 가족친화 문화 확산,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젠더 폭력 예방 방안을 위한 기반 확대 등이 거론됐다.

758 1377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나눔”

2월 기탁 현황

▲금강축산유통=축산물124kg ▲유진상사=오뚜기 식품3,175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98모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26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2,140개 ▲미인빵=빵85봉 ▲빠라빠빵=빵6봉 ▲아라파파=떡143개 ▲파리바게트 제주대유대림점=빵177봉 ▲훈이상사=식재료22개 ▲(주)쿵스토어 제주이도점=빵118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감귤쥬스200개

•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1월 후원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 가 결 연 후 원	330,000	0
난 처 병 환 아 후 원	50,000	0
자 원 봉 사 후 원	985,000	985,000
복 지 사 업 후 원	1,035,000	82,590
푸 드 마 켓 후 원	3,240,000	6,397,31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등록번호 : 제주 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위원실 : 070)4726-8826

■ 편집인 : 고봉식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 편집디자인 : 디자인리더제주

이웃 지킴이 '좋은 이웃들' 사업 운영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지난해 367건 지원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좋은 이웃들'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우리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을 찾아 신고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사진>

봉사단은 통·반장, 배달원, 부녀회, 경찰관 등 주민과의 접촉이 밀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 노숙자, 중증질환자, 장애인 등을 찾아내 위기구호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알람이 역할을 수행한다.

'좋은 이웃들' 사업은 2012



년에 전국 34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 100곳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이 올해에도 운영한다.

현재 아라종합사회복지관에는 202명의 '좋은 이웃들' 봉사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17명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공공·민간

자원연계 367건을 지원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702-4605)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라복지관 관계자는 "좋은 이웃들'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은 물론 민간복지자원 개발과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랑의 온도탑 모금 47억 '최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18나눔캠페인'이 역대 최고 모금실적을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일 제주도청 본관에서 원희룡 도지사과 공동모금회 임직원 및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018나눔캠페인' 종료에 따른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을 개최했다.<사진>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73일 동안 '희망2018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결과 목표액(44억1500만 원)보다 3억 5000만원 초과한 47억6509만원을 모금했다. 사랑의 온도탑도 107.9도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모금액은 전년도 캠페인 모금액 43억2699만원보다 4억3810만원이 늘어난 액수로, 역대 집중모금 캠페인 사상 최대 모금액을 달성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만 10명이 가입하는 등 사랑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연합회원들과 활발한 봉사활동 펼칠 것"

자원봉사연합회 지난달 24일 정기대의원총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소속 자원봉사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제주시에 위치한 미소담 식당에서 '자원봉사연합회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날 총회에는 연합회 회원 및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총회는 자원봉사연합회 2017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안과 2018년도 사업추진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제9대 회장 이·취임식도 진행됐다.

제9대 회장에는 김홍철 자원봉사자(온누리봉사회)가 선출됐고, 수석부회장에는 좌용순 자원봉사자(좋은인연봉사회)가, 총무부장에는 김홍수 자원봉사자(작은세상봉사단), 사업부장에는 김정심 자원봉사자(작은세상봉사단), 평가위원회는 홍태욱 자원봉사자(온누리봉사회), 김정희 자원봉사자(손뜻모아봉사회)가 각각 선출됐다.

이들은 오는 2020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제9대 자원봉사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홍철 회장은 "앞으로 연

합회 회원들과 함께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함께 지난 2년 동안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원석철 전 회장(자원봉사연합회)과 김정심 단장(작은세상봉사단)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도 진행됐다.

원석철 전 회장은 "2년 동안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아쉬움이 많았다"라며 "그동안 함께 이끌어온 임원단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라어린이집 이웃사랑 물품 기탁

아라어린이집(원장 이승희)은 지난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가 운영하는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을 방문해 30만원 상당의 참기름(500ml) 77개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물품은 아라어린이집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희망을 나누는 콩알반쪽 나눔장터'를 열어 마련된 수익금으로 구매된 것이다.



아라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물건을 아껴쓰고 나눠쓰는 습관과 환경의 중요성, 나눔에 대한 보람을 알려주기 위해 이번 기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 성금 기탁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지사장 김권수)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를 방문해 사회복지기금(재래시장 상품권)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기탁된 기금은 독거노인을 비롯한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식생활 지원을 위한 '저소득가정 밀반찬 지원사업' 재료 구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생필품 나눔으로 채워 가는 사랑의 온기

아름다운 가게, 보따리 1004개 전달



사회적기업 아름다운 가게(이사장 홍명희)는 10일 제주시청 제1별관에서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나눔보따리는 쌀, 이불, 비타민, 삼푸, 저장식품, 수건 등 10만원 상당의 물품이 담긴 생필품 세트다.

아름다운 가게는 올해로 15회째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통해 전국의 혼자사는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 나눔보따리를 선물하

고 있다.

이 날 행사에는 제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및 서귀포시독거노인복지서비스원스탑지원센터 생활관리사를 비롯해 제주수눔음 지역자활센터, 아모레퍼시픽 제주지점, 아름다운 가게 활동천사 등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모여 1004개의 나눔보따리를 꾸렸다.

특히 이들은 혼자사는 노인 및 조손가정을 직접 방

문해 나눔보따리를 선물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수호천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 행복나눔마트, 롯데면세점, 네오플, 중부발전, 롯데호텔제주 등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나눔보따리 조성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이종욱 아름다운 가게 상임이사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 행사를 통해 혼자사는 노인들에게 우리 사회의 따뜻한 정성이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봉사자로 참여한 한 가족은 “딸과 함께 나눔보따리를 포장하고 배달하면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기준 개선

3월부터 이용료 1000원으로 가능

제주시는 1일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기준이 기본형·맞벌이형 구분없이 시간당 1000원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받은 후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기존 서비스의 경우 기본형, 맞벌이형 등 유형별로 지원되는 시간과 보육료가 달랐으나, 기준이 완화되는 3월 1일부터는 유형 상관없이 월 80시간, 시간당 보육료 1000원으로 통일된다.

단 월80시간 초과 이용할 시에는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용 대상은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070-4009-6566)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11곳이며, 지난 한 해 동안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은 약 880명이다.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참가자 모집

도내 소재 단체·법인 5일까지 신청 가능

제주도는 정착 주민과 이주여성들의 전문성과 재능을 활용한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신청을 받는다.

이는 제주도가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 중 하나로 경력단절 이주여성들의 전문성과 재능을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제주형 마을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3월5일까지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소재한 단체 또는 법인

이다.

운영단체 및 법인이 선정되면 정착 주민과 이주여성의 다양한 전문성(문화, 예술, 교육 등)을 마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혼디’를 20명 이상 모집·양성할 계획이며, 양성된 ‘혼디’는 마을공동체 일자리 사업 발굴과 컨설팅에 참여해 마을공동체 단위의 제주 일자리 추진사업을 5개분야(사업당 1000만원 이내) 발굴하게 된다.

제주마을살이 코디네이터 ‘혼디’란 제주의 문화와 역

사·사람·생활의 가치를 발견, 행복한 마을살이를 위한 관계를 엮어가며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제주(마을)살이 코디네이터다.

이주여성들의 제주살이 정착을 돕고 건강한 삶의 문화와 함께 사는 마을문화를 추구하며 디자인하는 제주(마을)살이 디자이너이며, 실제 마을 안에서 선주민과 이주민들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갈등소지를 줄이고 제주(마을)살이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중간관리자(선주민-이주민)로 역할 수행하게 된다.

“전통문화로 고향 그리움 달래요”

다문화가정제주도협회, 지난달 17일 행사



고유명절 ‘설’을 맞아 도내 다문화가족과 거주 외국인 등이 참여해 훈훈한 정을 나누고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장이 마련됐다.<사진>

(사)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협회장 오명찬)가 주관하는 ‘설 맞이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이 지난 달 17일 제주시 남광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1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즐거운 설 명절에도 친정이나 고향이 타국 이어서 가지 못하는 다문화가족과 거주 외국인을 위로하고, 설 명절 다음날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정을 나누며 한국전통문화체험과 더불어 다국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들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축하 필리핀댄스공연을 시작으로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씨름 등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와 함께 중국의 전통놀이 쿵쥬(空竹), 필리핀의 전통 텅클링(tingkling) 등 다양한 나라의 민속놀이가 진행됐다.

보도자료 접수 안내

제주사회복지신문은 도내 사회복지소식 보도자료를 매달 22일까지 제주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생활게시판 “알림” - 보도자료’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영어뮤지컬 교실 운영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3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영어뮤지컬 교실 ‘에스페란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아동영어뮤지컬 교실은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뮤지컬 교실에 참여한 아동들은 오는 11월까지 영어 및 뮤지컬에 대해 교육을 받고 연말에 교육문화 발표회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연 2회 제주도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재능기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은성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영어뮤지컬 수업을 통해 아동들이 영어 실력이 향상되고, 뮤지컬을 통해 문화예술을 접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달까지 신청 및 면접을 거쳐 최종 15명을 선정했다.

● 소/식/마/당

(무순)

복지사각지대 해소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화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태리·김경빈)은 지난달 1일 도사회복지협의회 바람소리홀에서 화북동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화북동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환경정화 활동 실시



제주지방조달청(청장 김현태)는 지난달 12일 설명절을 맞아 혜정원장애인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품 및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제주지방조달청 자원봉사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시실 앵글작업과 도자기 제품을 정리하는 등 시설이용자들이 쾌적화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정화도 실시했다.

아동 우울증 치료 교실 운영



서귀포시 비전지역아동센터(센터장 박명훈)는 지난 1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 우울증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월 1~2회 미술치료 및 상담전문가를 초빙해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증상이 있는 아동 및 위험군 경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치료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정 수녀 애덕의집 원장 취임



제주애덕의집은 지난달 1일 허윤정(로사)수녀가 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허 원장은 제주출생으로 수도회 ‘말씀의 재가 선교회’ (제주교구 소속 수도회)소속이며 2000년부터 약 17년간 서울에 있는 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직했다.

허 원장은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을 만들며 다른 직원분들의 업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분위기에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8주년 개관 기념식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필수)은 지난달 2일 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이용자 및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8주년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김필수 관장은 “18년간 잘 다져진 기틀 위에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익 및 복지향상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 물품 전달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지난달 14일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을 방문해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정기적으로 서귀포시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재두 서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12월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시설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환경보전 인식개선을 위한 환경체험 프로그램 ‘내가 그린(Green) 세상’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자연체험활동으로 구성된 ‘환경이 고마워’와 재활용품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 보는 ‘업사이클링 활동’, 작품전시회 ‘환경을 뽐내자’로 구성됐다.

위문금 전달 ‘훈훈’



제주학생문화원(원장 장지순)은 지난달 14일 제주시에 위치한 장애인요양시설인 케어하우스를 방문해 전 직원이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제주학생문화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동화구연활동 보조와 시설 내 청소활동,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음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재능나눔 봉사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희망나래 직원연수 개최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달 9일부터 10일까지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직원연수 ‘희망나래 직원연수 가즈아~’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영등포구에 위치한 행복나루, 금천구 EIM실천, 용인 해든솔직업지원센터, 공정무역 지구마을카페, 의정부 숲스토리 등 선진 시설을 방문해 다양한 비전과 특성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는 지난달 9일부터 28일까지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외 9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270여명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을 운영했다.

교육내용은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는 올바른 목욕법과 보습제사용법, 아토피 천식 바로알기,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증상, 대처법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사무실 이전식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제주협회(협회장 김우찬)와 부설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원화자)가 지난달 1일 센터 사무실에서 사무실 이전식을 가졌다.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센터 공간 협소 등으로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한 사무실은 신광로 15(제주아카데미하우스 6층)이다.

장애인인식개선 강사 양성교육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22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장애인인식개선 신규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제주 지역사회의 올바른 장애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유치원,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체험(시각장애체험, 시지각협응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시론

월요일 겨울 산에서

엿그제까지 많은 눈이 내렸다. 설국으로 변했던 잿빛도시는 사람들의 열기와 제설로 그 흔적이 희미하다. 그러나 잡힐 듯이 보이는 장엄한 한라산은 온통 백색이다. 어쩌면 이 설원의 장관을 놓칠세라 한라산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다. 도시를 벗어난 산야엔 아직도 잔설이 수북하다. 성판악 인근엔 월요일인데도 등산객차량들이 도로 변을 메우고 있다.

눈 덮인 등산로엔 못사람들이

적막하고 고즈넉한 겨울산

삼삼오오 짝을 지어 산행을 재촉하고 있다. 설원 산자락엔 험벗은 나목들이 장승처럼 즐비하게 서있다. 지천으로 널려있는 굴거리나무들은 폭설에 풀이 죽어 축 늘어졌다. 숲 사이로 내리는 햇살에 등산로는 유리알처럼 빛난다.

겨울산행은 봄, 가을의 역동적인 분위기와는 달라, 적막하고 고즈넉하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 산을 한 폭의 서양화라고 한다면, 백색의 설원과 험벗은 나목의 겨울산

은 한 폭의 동양화 같다. 한라산의 사계는 저마다 독특한 신비로움이 있다. 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런 민족의 영산이 있으니 신이내린 축복이 아니겠는가.

한 시간 반쯤을 올랐을까. 아름드리 노송나무 군락이 펼쳐진다. 눈이 나뭇가지에 살포시 내려앉아 아름답고 탐스러운 하얀 꽃이 되었다. 초록과 백색이 조화를 이룬 눈꽃! 오직 대자연만이 빚어낼 수 있는 수작이 아니던가. 진녹색 녹음도 울긋불긋 단풍도 사계의 순환 앞에 그 자태를 모두 떨쳐내고 탐스러운 눈꽃을 피워냈다.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안개비처럼 흩날리며 떨어지는 눈꽃을 보며 감탄사를 자아낸다. 다른 등산객도 이구동성이다. 대자연이 빚어내는 한 폭의 산수화 같은 풍광에 흠뻑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봄가을에는 여러 번 산에 올랐으나, 월요일 겨울산행은 처음이다. 40여 년의 공직특별권력관계를 끝내고서야 이제 자유를 얻은 셈이다. 벤치에 뒀던 눈을 대강 쓸어내고 앉아 평

온함을 찾는다. 자연의 무아경에 도취되며 뒤돌아보는 여유로움이다. '월요일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자연속에서 평온함 찾아

등산객들은 여유 속에 누리는 즐거움과 평온함일까. 아니면 고달픔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민초들의 일상탈출인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잔영이 뇌리를 스친다.

백색의 설원이어서 그럴까. 삼삼오오 짝을 지어 내 앞을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속세를 떠난 스님처럼 고고해 보인다. 잠시 겨울 산의 사색을 끝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문익순

전 제주4·3사업소장

기고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알아두세요



구용남

안덕면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올해에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및 제도들을 정비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나 복지 분야에서도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변화가 있어 앞으로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선 중위소득 기준이 기존보다 1.16%가 인상되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약 135.5만원~225.9

만원 이하 가구(4인가구 기준)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두 번째,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이 강화된다. 만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이 현행 20~30% 보다 10% 인하(18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고 2종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도 40만원 확대되어 상한액이 연간 80만원으로 경감된다.

세 번째, 먼저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17년 11월 시행). 올해에는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를 인상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액이 17년 대비 8%가 인상되어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가 3월부터 인상된다. 초등학교생에게 미지급되

던 학용품비는 올해 연 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부교재비는 연 4만1000원(초·중·고) 지원되었는데 연 6만 6000원(초등학교생)~10만 5000원(중·고등학생)으로 인상 지원 될 계획이다.

다섯 번째, 만 15세~34세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평균 30만원 추가 매칭으로 매월 40만원씩 저축되고 3년 이내 탈수급 시 15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움킴 통장이 4월에 시행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급여는 인건비가 8.2%(근로유지형은 3%) 인상되어 자활근로자 수혜의 폭이 넓어졌다.

이와 같이 매년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는 물론 두터운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칼럼

치매를 부탁해

지난겨울처럼 애타게 봄을 기다린 적이 있었는가. 눈 구경 힘들다는 제주에 연일 폭설이 이어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불편을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4차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인공지능에 대해 논하지만, 결국 폭설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눈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일 뿐이었다. 문명의 진보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 것 같아도 자연재해나 질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된다.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 '화이자(Pfizer)'가 알츠하이머병(치매)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랫동안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신약 개발을 기대하던 전 세계 5,500만 명에 이르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 되고 말았다. 그동안 여러 대형 제약회사에서 치매 치료제 개발에 몰두하였으나 임상단계에서 그 효능을 검증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해 왔던 것이다.

일상생활 유지 정도가 관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로 치매를 정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절망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치매는 치료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치매환자가 존엄을 지키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에 따르면, 제주의 치매유병률은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12.1%로 추산되며 치매환자 수는 10,888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2017년 기준). 특히 85세 이상 인구의 치매유병률은 49.2%에 달하고 있어 85세 이상 노인 두 명 중 한 명은 치매환자라고 짐작된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급격한 노인인구 수 증가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가는 제주가 치매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 중 올해부터 시행되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비용 급증에 따르는 자원 마련의 문제,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인력의 전문성 문제,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문제 등 선결 과제가 많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지에 더해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치매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제주가 더욱 살 만한 곳이 되지 않을까.



고수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 1면에서 계속

이웃 위한 ‘식품 나눔’ 활발

제주광역푸드뱅크·마켓 접수액 지난 한 해 22억 돌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해 푸드뱅크 4곳과 푸드마켓 2곳에서 기부 받은 도내 식품 접수액이 총 22억9502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식품 기부액은 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처음 운영을 맡은 2004년 이후 2006년까지는 1억원대에 그쳤으나, 2007년 3억원으로 반등하고 2009년 사랑나눔푸드마켓이 문을 열면서

4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도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식품나눔캠페인’을 전개해 푸드뱅크·마켓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기부데이’를 진행하면서 식품 기부액은 10억원대를 돌파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11억5368만 원, 2015년에는 17억1860만 원, 2016년에는 21억2000만 원, 지난해는 22억

2282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2016년 20억원을 달성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기부액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시작된 지 14년만인 지난 2012년인데, 이후 불과 4년만에 20억원을 달성함으로써 식품기부문화가 도민사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제주지역 식품 접수액이 22억9502만원을 돌파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식품 문화가 활성화 되고 있다.

제주도내 신임 직능별 단체장 운영계획

제주사회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다. 특히 올해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장애·비장애 차별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환경 구현에 노력”



임 태 봉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성장 및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평화의 섬’은 달리 표현하면, ‘모든 도민이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으로 자유와 평등 구현을 위해 논의, 합의 및 실천을 행하는 과정 또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개인적 관점으로 고찰한다면 평화와 복지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 방향이 같

기에 ‘세계평화의 섬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장한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복지의 메카로 성장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도내 5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도민이라면 누구나 43개 읍면동에서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장애·비장애라는 사회적·제도적 구분과 차별 없

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함과 더불어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제도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아가고자 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미래 구현을 위해 장애인복지현장가의 전문성 향상과 장애인복지실태 및 문제 연구 및 서비스 개발, 장애인복지정책 연구 및 제언 그리고 장애인복지서비스 네트워크-망 구축·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에게 ‘권리의 주체이며, 사회의 구성원이고 도민으로서 그리고 복지의 주 고객’으로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협회와 도내 소재 5개 장애인복지관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 단계별 제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적극적인 참여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소득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 봉 금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듯이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는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고 가치이고 권리이기도 하다. 정부나 민간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특히 소외되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제주도내 10군데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350명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민간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장애인들의 소득을 책임지기엔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낀다. 중증장애인들의 급여를 오로지 시설원장과 종사자들이 책임지게 하는 나라는 OECD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고 들었다. 이제는 일하는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위기를 가져왔

다. 혹자는 장애인들이 직무가 부족하여 최저임금에서 예외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하는 장애인들의 의지를 꺾고, 일을 할수록 더욱 빈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들이 진정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은 가장 최하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올해 제주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는 제주도내 근로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리고 밤낮없이, 주말 없이 근로 장애인의 급여를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관심과 실천을 기대해본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해가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적극 이용해주시고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고용안정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설탐방

(94)원당요양원

“작지만 강한 시설로 성장할 것”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보호자와 소통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작지만 강한 시설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치매나 뇌졸중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안락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원당요양원**(원장 정학주)은 삼양 마을 안 원당봉과 삼양 앞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 자리하고 있다.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13년 문을 연 원당요양원은 치매나 뇌졸중을 비롯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및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원당요양원은 ‘함께하자’와 ‘실천하자’를 미션으로 삼아 현재 28명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함께하자’는 요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 어르신들과 보호자, 직원들 모두가 함께하자는 의미를 담았고 ‘실천하자’를 통해 시설 어르신들에게는 공경, 보호자에게

는 친절을, 직원에게는 봉사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특히 원당요양원은 보호자들이 마음 놓고 부모님을 맡길 수 있도록 작은 내용이라도 수시로 교류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복지 실현 위해 개소… ‘함께하자·실천하자’ 미션 스토리 가미 모래놀이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무엇보다 입소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인권에 기초한 요양원 운영을 실천하고 있다.

정 원장은 “시대가 변하면서 삶의 많은 부분들을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요양시설은 다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사람 손을 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원당요양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프로그램부터 스토리를 가미한 모래놀이

이치료, 고향방문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모래놀이 치료는 단순히 모래가 아닌 삼양바다 모래를 이용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 특히 스토리를 엮어 어르신들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

도록 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고향방문 사업은 시설 어르신들의 고향을 찾아가는 사업으로, 자신들의 모교와 골목 등을 거닐며 잊고 있었던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

이밖에도 도자기 만들기, 송편 빚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요양시설인 만큼 운영비 부족 등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겨울철 난방비 모금을 위한 바자회와 후원

금 모금 등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 원장은 “다양한 평가지표로 시설을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요양원을 떠올렸을 때 ‘식사가 잘나오는 시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시설’ ‘어르신 청결관리가 잘되는 시설’ 등 어떠한 특징으로 기억되고 회자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의 안전문제가 가장 큰 걱정이다. 낙상이나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어르신들을 빠르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안전 통로를 구축해 보다 안전한 요양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지 기자>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50

이자의 최고 한도는?



황인철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여유 자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급할 때 돈을 빌려쓰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흔한 일이다. 아주 친한 사이

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이자를 주고 받지 않기로 하는데 이는 매우 예외에 해당하고 보통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사이에 일정한 이자를 약속하게 된다. 만약 친구에게 내 돈 1,000만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이자를 300만원(연간 이자율 30%) 받기로 약속했을 때 당사자들만 합의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 이자의 상한을 정하는 법

경제 영역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의 이자를 허용하게 되면 신용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질 위험성이 커진다. 소액을 빌려도 일 주일, 한 달 만에 원금의 몇 배가 된다면 채무불이행 상태가 심화되고 범죄와 연결되거나 더 큰 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법은 경제주체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고율의 이자를 받으면 처벌

을 받는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줄여서 ‘대부업법’)이 바로 그것이다.

◆ 통일된 최고 이자율 24%

이자제한법은 일반 사인간의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이고 대부업법은 등록된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친구간에 30%의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한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이 되어 돈을 빌려준 친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이

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25%, 대부업법상의 한도는 27.9%였다. 그러나 2018. 2. 8.부터 법정 최고 금리는 두 법 모두 24%로 조정되었다. 이 날짜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금전 거래에서는 최대 연간 24%의 이자만 약정할 수 있고 이보다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법무부 발간 ‘2017 법률홈닥터 우수사례집’에 실린 실제 사례입니다.